

# 다구를 찾아서

11 포다법



## 다구는 차의 색·향기·미 드러나야

명 태조 주원장(朱元璋, 1328~1398)은 호주(濠州, 지금의 안휘성 봉양) 사람으로 가난한 소작인의 막내로 태어났다. 17세(1344)가 되던 해에 가뭄과 돌림병의 유행으로 부모와 형제들이 차례로 목숨을 잃자 부근의 황각사(皇覺寺)로 가서 승려가 됐고, 25세(1352)에는 홍건적의 난에 대항해 거병한 곽자홍(郭子興)의 휘하로 투신했다. 1368년 국호를 대명(大明), 연호를 홍무(洪武)라 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주원장은 자신이 가난한 소작농 출신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수고로움을 덜어주려 애썼다.

특히 전대(前代)까지 연고차(研膏茶)를 공급하던 것을 일자로 바꿔 읍다종속이 크게 변화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에 대해 심덕부(沈德符)는 <임금께 바치는 차(供御茶)>에서 “건국 초기 사방에서 바치던 차는 건령(부젠성(福建省) 건구원)과 양선(장쑤성(江蘇省) 의흥현) 차의 품격을 으뜸으로 삼았다. 이

때는 오히려 송대(宋代)의 법도를 그대로 따라 진상하는 것으로 모두 밋돌질하고 비벼서 크고 작은 용단차(龍團茶, 용무늬가 찍힌 덩어리차)를 만들었다. 홍무 24년(1391) 9월에 이르러 황제께서 백성들의 수고를 중히 여겨 용단차 만들기를 그만두게 하고 오직 찻 싹을 따 채로 진상케 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황제의 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점다법(點茶法)이 사라지고 일차를 우려 마시는 포다법(泡茶法)만 남은 것은 아니었다. 당대와 송대에도 단차와 일차는 공존했지만 귀족들은 단차를 이용한 점다법을 선호했다. 귀족들이 기품의 주체였기 때문에 다서에서는 점다법이 주로 거론됐다. 황제의 칙령이 있었다고 해서 귀족들이 모두 일차만을 마셨던 것도 아니었다. 명대와 청대에 쓰여진 다서에 점다법이 계속해서 등장한 것을 보면 청대까지도 단차와 일차는 공존했다.

그리고 채다(採茶)시기에 있어서 송대 다서에는 경칩(3월 5일)에서 청명(4월 5일) 전후로 기록했는데 이것은 푸젠성(福建省) 건안의 복원차를 기준했기 때문이다. 명대의 다서에는 곡우(4월 20일)가 알맞다고 기록한 것은 저장성(浙江省)과 안후이성(安徽省)의 차를 기준 삼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명대의 채다시기는 조선에서도 영향을 미쳐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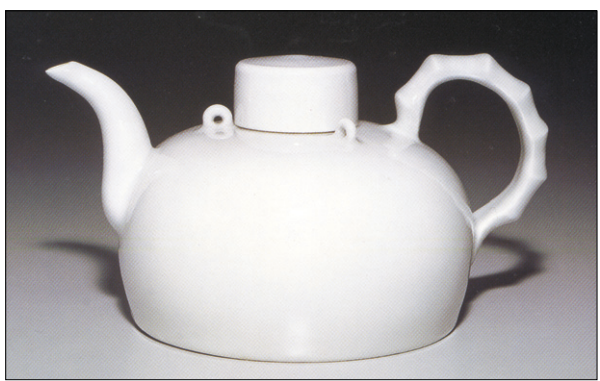
포다법이 성행하면서 다구(茶具)에 대한 미적, 실용적 기준이 바뀌었다. 차호는 차를 잘 우려내어 차의 색·향기·미를 드러낼 수 있는 형태와 재질을 찾아 연구했다. 찻잔은 우려낸 차의 맛색이 그대로 드러나는 빛깔과 우려낸 차의 색향기미를 해치지 않는 재질을 찾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물중 하나로 영락제 시기의 백자를 꼽을 수 있다. 명 왕조는 경덕진(景德鎮, 강서성의 북동부에 위치)에 부랑자구(浮梁瓷局)을 설치한 후, 홍무 2년 관요(官窯)를 만들어 자기·황실용 자기·수출용 자기를 제작했다. 경덕진에서는 백자뿐만 아니라 청화백자, 홍유(紅釉)와 유리홍(釉里紅)자기, 흑유(黑釉)자기 등도 생산했다. 특히 영락제(永樂帝, 1403~1424) 시기에 생산된 자기는 다른 시기와의 구별되는 독특한 미감이 있다.

경덕진은 여러 왕조 동안 백자를 생산했지만 대부분 무박했다. 송대 백자는 백색 유약에 청색을 띠어 ‘청백자(靑白瓷)’ 혹은 ‘영청자(影靑瓷)’라 불렸으며, 원대 백자는 청색이나 얇은 황색의 유약을 입혀 소성한 것으로 색감이 짙은 오리알 같은 담청색이

거나 계란 흰자와 같은 느낌이어서 ‘난백자(卵白瓷)’로 불렸다. 명대 영락제 시기의 백자는 ‘침백자(淸白瓷)’라 불렸다. ‘침백자’란 태토의 입자가 작고 빛깔이 흰 백자를 일컫는 것으로 유약에서 나무와 비슷한 광택이 나며 색이 아주 곱고 윤이 난다. 송대 침백자가 투명하고 광택이 강해 다소 함축적인 감이 없었던, 원대 난백자는 조잡하고 둔해 보인다. 이에 반해 영락 침백자는 윤이 나면서도 무게감이 느껴지고, 정교하면서도 함축적이어서 과거 어느 시대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독특한 맛을 지니고 있다.

이 침백삼번차호(淸白三繫茶壺)는 태토와 유약이 영락제시기의 전형적인 침백자의 유형으로 명대 궁정에서 사용하던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차호 전체에 무늬가 없고 호의 어깨에 장식으로 세 개의 고리가 있으며 손잡이는 대나무마리를 본떠 만들었다.

백기란 bdaol@hanmail.net 동아사이버문화연구소 연구원



명 영락무관 침백삼번차호(明永樂無款淸白三繫茶壺). 대만고궁박물관 소장. 높이 11.0cm, 구경 4.0cm, 밑지름 12.8cm.

###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건이야기

서운암 연못



태양의 길었던 여로의 끝은 4월의 작은 연못이었다. 마추천 행자의 눈빛처럼 연못은 그 아득한 태양을 찰나에 받아내고 있었고, 간밤에 물고기가 뒤척이던 자리엔 가지들 떠난 꽃잎들이 내려앉았다. 4월은 겨울을 잊은 연못 위에서 그렇게 반짝이고 있었다.

다른 시선이 와서 머문다. 언젠가 만나야 할 인연이 이제 한 생을 즐기고 지나간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날까. 봄은 겨울이 떠나간 자리에 와있고, 인연은 인연이 떠나간 자리에 와 있었다. 붉은 물고기 하나가 연못 속에서 봄을 탄다.

### 옛 판화의 세계

#### 신진언을 외우다 (天母護身)

삼화는 마리천 보살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판각하고 있다. 마리천은 마리천보살이라고도 한다. 태양이 뜨기 전 신력(神力)을 갖는 천신이며, 병란의 재화를 당할 때 이름을 부르면 재난에서 구해준다고 한다. 마리천(摩利支)·마리자·마리천보살·마리천제바라고도 하며, 양염(陽瑔)이라고 번역한다. 산스크리트 'marici'의 음역이며, 의미는 형상을 볼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으며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는 뜻이다. 마리천(Marici)은 원래 얼굴이 셋, 팔이 여덟 개인 형상(形狀)을 숭고하고, 장애와 어려움을 없애 주면서 이익을 베풀어주는 천신(天神)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무사의 수호신이며, 전투에 지친 용사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군신으로 아름답고도 강한 모습을 지닌 여천왕으로 묘사된다.

“무슨 법으로 그것을 면할 수 있습니까? 지교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남마다 마리천보살의 이름을 700번 두루 염송해 공중을 향해서 천조의 현인들에게 회향할 수 있다면 사자에서 이름을 지을 수 있고 전쟁의 재역에서 면한다.”  
이에 이각이 절을 하고 사례를 올리자 그는 수레를 타고 그곳을 떠났다. 이때부터 이각은 그치지 않고 마리천보살의 이름을 숭지 했더니 난을 면하게 됐다.  
염송법에 이르기를 “나무석가모니불을 열 번 소리 내어 부르고 ‘나무마리천보살’ 700번 소리 내어 부르라”고 했다. <최상심진언>에는 “옴 마리천 사바하를 700번 소리 내어 부르고 원상호아제자사바하(願常護我弟子娑縛質) 부르라”라고 했다. 이러한 의식은 <불설마리천보살다라니경(佛說摩利支天菩薩陀羅尼經)>을 외면서 각종 재난이 없게 되기를 기원하는 불교의식인 마리천도량(摩利支天道場) 의식으로 이어졌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시대에 개설(開設)돼 병재(兵災) 예방의 목적으로 이용됐다.



고려화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천모호신(天母護身). 불암사 판 1673년간행, 반곽(半郭) 27.2×18.0cm

##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제천 금강사 불교여자전문대학 학생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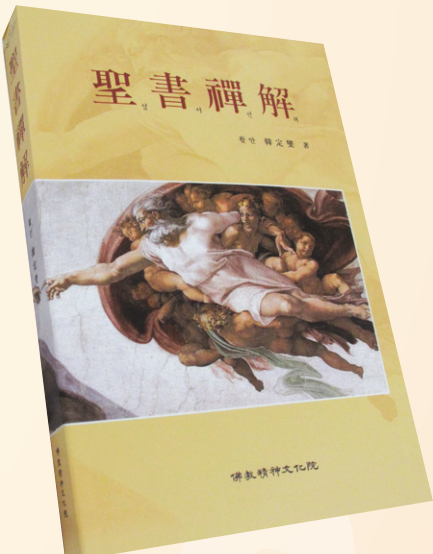
초발심자와 출가를 원하는 불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특히, 해외 포교 희망자와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들을 환영합니다.

### ◆ 교육내용

	내 용
불 교 교 리	① 경(아함·방등·반야·법화·열반·화엄경) ② 율(4분율·5분율·비구·비구니·우바세·우바이 계율) ③ 논(구사·유식·3론·기신론) ④ 선(위빠사나·명상·선 실습) ⑤ 포교론(군법당·교도소 등) ⑥ 밀교
불 교 의 식	① 조석예불·종성기도 ② 불공·사식 ③ 송주·장엄염불·방생법회 ④ 승무(천수바라·공양무 등)
기타 교양강좌	외국어(영어회화) 꽃꽂이·다도·등공예

- ◆ 모집기간 : 2010년 4월 15일 ~
- ◆ 개강일자 : 2010년 6월 3일 (수) 오전 10시 입학식 (입학식 후 금강경오기해 특강 - 불교TV 방송녹화)
- ◆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목요일 오후 4시 (매주 12시간)
- ◆ 모집인원 : 약간명 (기숙사 완비)
- ◆ 강의장소 : 제천 금강사 (충북 제천시 모산동 257-3번지)
- ◆ 특 전 : 1년 ~ 2년 과정으로 포교사·전법사 자격증 획득 출가를 희망하는 분에게는 식발·수계
- ◆ 교 수 : 활안·도기·정명스님을 비롯하여 국내외 저명한 학자와 각계 전문인들
- ◆ 문 의 : 사단법인 한국불교 금강선원 ☎ 02)969-2410  
제천 금강사 ☎ 043)646-3800 충북 제천시 모산동 257-3

## 성서선해 (聖書禪解)



“진리는 하나이다. 그러나 현자들은 서로 다른 이름과 형태로 이를 설명한다.”  
- 힌두성전 우파니사드

불경과 성경이 다 같이 우주 진리를 전하고 있다면 이 두 성전에 담겨있는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없다. 오직 이 진리를 인간 지혜의 근기에 따라 서로 다르게 말하고 해석했을 뿐이다.

“불경과 성경이 지난 수천년 동안 인류가 이에 의지하여 악을 그치고 선행을 해왔고, 어리석은 마음을 깨달아 지혜로운 삶을 개척해 왔다”  
- 성서선해 머리말에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한국불교 금강선원 총재 활안 스님께서는 기독교 성경을 선(禪)의 마음으로 읽고 그 뜻을 해석하셨다.

聖書禪解 · 편저: 활안 한정섭 / 발행처: 불교정신문화원 / 318쪽 / 가격: 15,000원

· 구입문의 : 02)969-2410 / 010-5611-0657